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대환란 전 휴거에 대한 증언-**

**말씀침례교회, 윤성목 목사**

<http://av1611.net>

## 01. 교회는 대한난을 통과하는가?

말씀: 살후2:2

요절: 살후2:2

지금은 누구나 다 ‘종말’이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불신자들조차도 이 세상의 종말이 다 왔다고 공공연하게 떠듭니다. 각 나라마다 대형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늘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막13:8)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 중에 하나는 역병입니다. 조류 독감, 돼지 독감을 비롯해서 이름도 모르는 신종 플루엔자들이 범람함으로 온 세상을 공포와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진, 전쟁, 기근, 역병 등은 모두 재난의 전조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눅21:11).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란 복된 소망으로 들뜬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대한난이 시작된다, 우리는 환란을 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교회 내에 넘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을 다룬 마야 캘린더(마야 문명에서 나온 예언의 달력)를 기반으로 재난 영화를 만들었는데 많은 이들이 이 주장에 동감하고 2012년에 행성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Planet X가 지구를 통과하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알면서도 숨긴다는 등이 루머가 인터넷상을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2012년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즐겨 외치는 종말의 해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한 형제가 인터넷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서 이런 주장들을 번역해서 믿고 전파하고 싶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유명 랍비들이 받은 신탁, 예언이 있다며 2012년, 2015년, 2018년 등 별별 다양한 종말의 날짜를 제시합니다. 올 해 누가 저에게 2010년 3월에 예루살렘에 제 3성전이 건축될 것이니 기대하라며 의기양양하게 혀를 놀렸습니다. 벌써 지금이 5월이지만 저는 예루살렘에 어디에 성전 기초공사를 한다는 소식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지 순례를 떠나지만 거기서 성전 공사를 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악한 영에 사로 잡혀서 언제나 진리보다 거짓말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성도들, 형제들이라 불리는 자들 중에는 성경 말씀보다 떠도는 정보, 루머, 소문을 진리처럼 믿기를 좋아하고 확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들이 마귀에게 속았거나 구원 받지 못한 가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징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살후 2:10-11).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끌리는 것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아닌 오류의 영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목자로서 저는 그런 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바로 잡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이곳 미국에서 유행하는 소문 중에 하나가 베리칩(Veri-chip)이란 것입니다. 이번에 이곳 미국에서 의료 개혁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시민들은 예외 없이 다 이 칩을 몸에 이식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짐승의 표]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 때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했는데 이제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합니다.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이것만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서 용에게 권능을 받은 짐승이 하늘에 불을 내리며, 각종 이적들을 행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에 살아나서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을 때,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대환난 중간에 있을 일입니다(계13:13-14). 대환난 때 있을 일들을 지금 현 시대에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 언제나 대환난을 전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상식적인 진리조차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대환난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소문, 역병의 소문, 기근의 소문, 잦은 지진과 각종 별별 이상한 소문들이 들끓을 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살후2:2). 그런 것들이 대환난의 징조라면 우리는 그보다 앞서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펴서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18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친히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긴 자입니다(요일

5:4). 교회는 저 하늘로 옮겨지기 전까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 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7을 보십시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계13:7). 대환난 때 마귀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기는 것을 허락 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환난 때는 마귀가 성도들을 이길 뿐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할 권능을 받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들림을 받아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도’란 말만 나오면 다 신약의 교회 성도들인 줄로 압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약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약4:7)는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마귀를 이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대환난 때의 성도들은 마귀를 싸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피해 피하고 숨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이다.]**(마24:16). 이 둘은 전혀 대상이 다르고 세대가 다릅니다. 교회는 마귀를 이기며 살다 대환난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대환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대언(예언)들을 볼 때 지역 교회들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 지상에서 대환난이 시작되는 4장부터는 대환난이 끝날 때까지 ‘교회’란 단어조차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늘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요한은 각 지역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은 후 “**이리로 올라오라**”(계4:1)는 말씀과 더불어 들림을 받았고 대환난을 보고 들었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들을 때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는 휴거 때 발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살전4:16, 고전15:52).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저 하늘에 들림을 받은 후에 이 땅에 있게 될 대환난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교회는 사랑받는 신부입니다(엡5:25). 요한이 대환난 직전 들림을 받았듯이 교회 역시 대환난 직전 들림을 받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7). 대환난 때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계7:3). 대환난 때 언급되는 성도들은 모두 환란 성도들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민족적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벽을 허물어 뜨린 후에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은 오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 불과합니다.

대환난은 교회가 받는 고난, 시련, 단련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으로서 이전에 없고 이후에도 없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마24:21). 많은 이들

이 성경에 나오는 환란(tribulation)을 대환난과 같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2,000년 교회사의 역사는 피흘린 발자취라 불리는 고난과 환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대환난이 아닙니다. 대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입니다. 어떤 신자가 성경에서 tribulation(환란)이란 단어를 몽땅 뽑아서 제게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명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16:33). 주님은 제자들에게 환란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스테반, 바울 등 모든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환난이 대환난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행14:22). 제자들이 거칠 ‘많은 환난’이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대환난입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이들은 언제나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지만 결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환난은 야곱의 대환난입니다.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렘30:7). 대환난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지 못한 이들을 정련하는 때이지 이미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교회가 정련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며 순결하며, 거룩합니다.

대환난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를 쏟아 붓는 진노의 때요, 심판의 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6:17). 사람들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며 산들과 바위들이 자신들 위에 떨어지기를 소원할 만큼 무서운 진노의 때입니다(계6:16). 대환난은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은혜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는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는 말씀대로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대환난은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파멸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습1:15).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과 전혀 다른 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살전1:10).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다가올 진노로부터”란 말은 대환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살전 5:9). 교회는 이

## 대환난 전 휴거에 대한 성경적 증언

세상의 진노, 사람들의 분노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진노에는 단호하게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약4:7, 벧전5:8). 주님은 교회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이길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진노, 마귀의 진노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대환난은 마귀의 진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노(wrath)는 14구절 중에서 12번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계6:16).

“그분의 진노의 큰 날”(계6:17).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계11:18),

“진노의 포도즙”(계14:8).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계14:10),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계14:19),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계15:1).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병을...”(계15:7).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계16:1).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계16:19) ...etc.

성경은 분명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살전 1:10)라고 말씀하십니다. 휴거는 다가올 진노로부터(wrath to come)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면 **“이미 다가온 진노로부터”(wrath has already come)**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이들은 환란 통과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가올 진노’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 대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을 때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10은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대환난 즉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대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요,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 진노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임합니다(요3:36).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b). 성도들은 아들을 믿습니다.

-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임합니다(롬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

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롬1:18).

-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엡5:6).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엡 5:6).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골3:6).**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명쾌하게 이 사실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언제 구원해 주셨습니까? 홍수란 대환난 전에 이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2월 17일에 비가 쏟아졌는데 노아는 2월 10일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모든 신약 성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에녹은 언제 들림을 받았습니까? 대홍수가 오기 훨씬 전에 들림을 받았습니까(창5:25).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God took him. \*히 11:5. 롯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 내셨습니다(TOOK OUT). 천사는 롯이 거기서 나올 때까지 심판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창19:22). 다가올 진노의 날(대환난)은 결코 교회가 들림받기 전까지 결코 이 땅에 행해질 수 없습니다.

일부 환란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마귀의 진노’는 다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럴듯하게 속이는 말장난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도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계12:12).** 계시록 12장은 용이 분노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대환난이 야곱의 고난의 때요 주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관한 것임은 일관된 성경의 선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언급합니다(계7:2-8). 아예 각 지파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지파도 아닙니다. 대환난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봉인하는 무리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모두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용의 진노’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계12:17).** 용이 누구에게 진노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여자는 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환난 때 회심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믿을 뿐 안라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

는다는 점에서 구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점에서 신약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환란 성도들’입니다. 대환난 때 이 땅에 천만이 넘는 유대인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구원 받는 자는 144,000명이 전부일 것입니다.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휴거를 기대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에게 주어진 [대환난]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율법의 행위라는 저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지만 장차 이 땅에서 대환난을 통과할 성도들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류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지체가 된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대환난에 대한 이 진리는 너무나 혼탁한 실정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토론은 언제나 논쟁과 다툼만 불러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대환난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진리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5장을 펴 보십시오. 지상에서 대환난이 시작될 때 하늘의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 스물 네 장로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받은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계4:4). 주님의 왕좌 둘레에 있는 스물네 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장로란 호칭은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들에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왕좌 주변에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흰 옷과 금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5가지의 왕관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고전3:11-15, 고후5:10).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계1:6).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딤후2:12). 이들 스물네 장로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이란 사실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간증을 들어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계 5:9-10). 그들은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자신들을 구속하셨다는 분명한 크리스천의 구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 1:5-6절에 언급된 ‘크리스천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고로 스물네 장로는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지상의 대환난 때 저 하늘에서 주의 보좌 둘레에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계4:10, 5:8,14, 11:6, 19:4). 스물네 장로는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요, 증인들입니다.

스물네 장로의 정체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 성경 그 자체

에서 이들이 구원 받은 성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입은 흰 옷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계4:4).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도 왕관을 쓰거나 왕좌에 앉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는다고 말씀하신 대상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데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계3:4). 자, 주목하십시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성도입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3:5). 누가 흰옷을 입습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스물 네 장로가 입은 흰 옷은 이긴 자들이 입는 옷으로서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15:57).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명세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고후2:14).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요일5:4), 마귀들을 이겼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요일5:5).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요일4:4).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지하 낙원에서 포로로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들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정사와 권능들을 다 깨뜨리심으로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머리에 금관을 쓴 스물 네 장로는 이미 하늘로 들림 받은 교회를 보여 줍니다. 이들은 왕가의 제사장 직분을 지닌 자들로서(벧전2:9),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딤후3:5).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는 빈자리(예약석)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물 네 장로가 구약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 두 사도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구약에서 장로란 한 민족, 지파, 가문, 혹은 도시의 대표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24명의 제사장이 직분을 담당했고(대상24:1-19), 다윗은 24명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찾아내어 모든 제사장 직분의 대표로 삼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계21:14). 열 두 대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계21:12). 이런 이유로 구약과 신약의 각 대표들로

## 대환난 전 휴거에 대한 성경적 증언

구성된 24명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고 신약에는 교회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주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사람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탄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벧전5:1). 사도였던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 역시 그러합니다. 요한이서, 삼서에는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장로는 선택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요이1:1).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요삼1:1). 장로교회에서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장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장로들이라 불립니다. **[그것으로(믿음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히11:2). 아벨에서부터 시작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를 먹이고 돌보는 이들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모두 저 하늘에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 때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 하늘에 있습니다. 모두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를 먹이고 감독하는 장로들이 모두 저 하늘로 들림 받았다면 양무리들만 남아서 대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을 불러 올리셨다면 양들은 이미 다 거기에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스물 네 장로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를 걸어도 교회가 대환난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to be continued-

## 02. 교회는 대한난을 통과하는가?

말씀: 벰후 2:7-9

요절: 벰후 2:7-9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여느 시대보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란, 종말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아마겟돈 전쟁 등에 대해서 들어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강론하지만 제 각각인지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펴서 성경의 증언들을 듣고 바른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대한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환란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환란을 ‘대한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를 넘어서 무지(無知)입니다. 이는 God와 gods가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서로 연관이 있고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Spirit(성령)이 있고 spirits(영들)이 있습니다. Lord가 있고 lords가 있습니다. 한 처녀(a virgin)가 있고 처녀들(virgins)이 있습니다. 발음이나 글자에서 깊은 연관성이 있는 단어이지만 이 둘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노아의 대홍수와 홍수들이 같은 홍수가 아니듯이 “야곱의 대한란과 환란들”은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소위 성경을 믿고 연구한다는 분들이 성경의 어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혼잡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받는 환란들은 대한란과 조금의 연관성도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대한란은 말 그대로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란입니다. 야곱의 대한란은 그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한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이다.]**(마24:16)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라구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LA나 뉴욕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때에 유대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마24:20).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은 유대인들뿐입니다. 도피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면 그들은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지 피해서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오늘날 신약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골2:16). 들림 받지 못할 안식교도들이나 유대인들에게나 해당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겪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요엘서 2:31,32을 보십시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욥 2:31,32). 대환란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대환란은 주의 날로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상을 보십시오.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뉴욕이나 LA, 파리나 로마가 아닙니다. 서울이나 도쿄나 북경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 받은 자들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계7:9). 이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입니다. 요한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000명씩 총 144,000명이 나오고 구원 받은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에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계7:9).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이 스스로 대답해 줍니다. **[...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에복을 찢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 나랏.]**(계7:14). 누군가의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대환란을 통과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에게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행 2:20-21). 베드로는 분명히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본문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욥2:31)이 아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행2:20)이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신약 시대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성도들에게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일 뿐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이 올 징조와 표적들을 보면서 예언의 성취를 주목할 뿐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0년 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 중에는 육신적인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이 지상에 대환란이 될 때 땅에 내려와 대환란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고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은 다음에 휴거(공중 들림)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만약 살아 있는 성도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휴거’는 산 소망

## 대환란 전 휴거에 대한 성경적 증언

이나 복된 소망이 아닙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죽어서 대환란을 보지 않고 부활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더럽기 때문에 대환란이란 불같은 단련, 정련의 시간을 거쳐 깨끗하고 순결하게 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에 무지한 헛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환란을 통해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남아서 환란의 일부나 전부를 겪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전형적인 행위 구원으로 저주의 복음일 뿐입니다. 오늘날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교회나 교파들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란 통과와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안전, 구원의 영원한 보증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모조리 무시해 버리고 불신하는 사악한 교리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들이며, 하나님의 대시들입니다(고후5:17-21). 그 어떤 국가도 전쟁이나 기타 급변 상황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국민 보호와 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이요, 종들을 대환란이란 마귀의 체제 아래 두고 견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교회를 데려 가십니다. 교회가 있는 한 마귀는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들림 받아야 마귀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예표인 에녹은 살아서 들림 받는 성도의 예표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며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유1:14). 에녹은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대언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려면 성도들은 이미 들림 받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녹은 이미 대환란 전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대언했던 것입니다.

Jesus came **to** his people. -초림.

Jesus comes **for** his people. -공중 재림.

Jesus comes **with** his people. -지상 재림.

룻을 보십시오. 구약의 미리 기록된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배움과 경고와 본보기로 주어졌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시며, 심판하지 않으실 것임을 입증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룻

은 소돔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 받는 혼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7-9을 보십시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 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나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멸할 줄 아시되](벧후 2:7-9). 베드로는 롯의 예를 들어 ‘의롭게 된 성도’는 대환란이란 시험, 심판에서 건짐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대환란은 시험의 시간입니다(계3:10). 대환란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그러했듯이 교회는 대환란 전에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들(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멸할 줄을 아신다고 선포합니다. 대환란 전에 건짐 받는 혼들과 심판의 때까지 예비해 두사 멸을 받는 혼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심에 주목하십시오. \*시험들, 심판의 날은 결코 혼이 지옥에 가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과 같이 이 세상에 임할 대환란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증언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길이 믿음의 확신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복된 소망, 산 소망, 영광스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대환란이 주의 오심보다 먼저라면 즉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후이나 들림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지 대환란을 기다리라,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거나 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규례요 명령으로 주어진 바울 서신서에는 단 한 번도 대환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 서신인 바울의 편지에는 대환란 때 교회 성도들의 삶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 때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갖가지 환난들, 고난들,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들을 대환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환란은 복된 소망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표적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란 통과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관심사는 언제나 땅의 표적들입니다. 짐승의 표, 베리칩, 각국의 화폐 통합, 종교 통합 등 각종 땅의 현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는 땅의 일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아무 애정이 없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 역시 땅의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우리는 그 전

에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2:36절입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 주리라.]**(눅 12:36). 주인은 결혼식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하고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돌아오시는 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결혼을 위해 오시는 것은 공중 재림입니다.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고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을 한 후에 이 땅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계19:7-8). 그분의 아내(교회)가 자신을 예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자신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했습니다. 신부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이미 들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교회가 대환란 이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10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계 3:10).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주님은 시험의 시간 즉 대환란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Keep...from입니다. Keep ...during(while)이 아닙니다. keep...from은 그 자체 속에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를 하지 못하도록 지킨다,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시험의 시각 그 자체로부터 지켜 주신다는 뜻이지 시험을 받는 중에 시험 속에서 지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구문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직역 한다면서 “나도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리라”고 번역해서 교회는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신다는 뜻으로 대환란 통과를 지지하는 구절이라고 역지를 부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 영어 문법이나 구문조차 파악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의 오역을 지적하는 수많은 분들이 영어 구문론부터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대부분이 단어에 매여 문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대환란의 기간)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일관된 약속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살전4:16-18). 여기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부활 성도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성도들입니다. 부활과 휴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시는 한 날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남아 있는 성도들 즉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살아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고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분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가 그들과 함께...채여 올라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고전 15:51-52).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 줍니다. 이 신비는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신비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지상에 있던 크리스천들은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but we shall all be changed(KJV).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일부는 변화되고 일부는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부분 휴거는 성경과 동떨어진 헛소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다\*(all) 변화되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변화되는 휴거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들이 부는 나팔 중에 일곱 번째 부는 천사의 나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을 모두 통과하고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세상에 내리는 나팔 재앙(심판, 진노, 정죄)을 처음부터 다 받은 후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들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대환란 동안에 전혀 대환란을 받지 않고, 그 시대에 살아 있는 성도들만 고스란히 주의 진노를 받습니다.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체요, 한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활 성도가 대환란과 무관하다면 살아 있는 성도 역시 대환란과 무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납니다. 부활이 먼저 있고 살아 있는 성도가 변화됩니다. 이 둘은 다른 날, 다른 시각에 발생하는 각자의 사건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두 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

## 대환란 전 휴거에 대한 성경적 증언

늘로 올라가기 위해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살아남은 성도들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며, 그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날 때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들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은 성도 역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대인(이스라엘 민족)과 신약 교회를 철저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둘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진리를 혼잡케 하고 스스로 오류에 빠져 헤매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의 환란,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이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해진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다니엘 12:1을 보십시오.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기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단 12:1). 다니엘은 분명히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대환란을 고난의 때라고 말하며 “민족(어느 민족?- 이스라엘)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증언하신 내용으로 교회가 받는 환란, 고통, 고난, 어려움 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모두 들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요, 복된 소망이요, 영광스런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지 대환란을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요8:32). 거짓과 오류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 불안을 조성할 뿐입니다.

### 03. 짐승의 표

말씀: 계14:9-11

요절: 계14:9-11

오늘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뒤범벅이 된 시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 거짓 사역자들은 의의 사역자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이 시대는 통합, 일치, 조화, 융합 등 온통 하나 됨을 위한 표어만이 높이 휘날리는 것발처럼 나부깁니다. 짐승의 표, 666, 적그리스도 등에 대해서 들어 보지 못한 크리스천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행이다! 짐승의 표는 멸망의 표이다! 등등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대환란 때 있게 될 사건들을 지금 현재 적용하려는 오류와 실수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을 펴서 제시하는 구절들은 대부분 대환란과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안식교도들이나 율법주의 종파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단들은 세대와 대상의 구분 없이 아무 말씀이나 모두 현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언 연구, 종말의 비밀과 신비를 파헤친다며 갖가지 주장을 펼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짐승의 표’에 관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구원을 잃어 버려서는 안 된다, 바코드는 짐승의 표이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이다, 문신(tattoo)은 짐승의 표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짐승의 표이다(안식교), 슈퍼컴퓨터가 짐승의 표이다 등등 별별 주장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성경을 펴서 기록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시대와도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초림)과 주님이 다시 오심(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입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이나 육체의 시험, 징계와 고난은 언제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먼저 ‘대환란, 큰환란’이란 말씀의 정의, 개념부터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대환란이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마24:21). ‘그

때에'라고 언급된 시기는 교회 시대가 아닌 대환란이 있는 시기로서 교회가 들림 받고 이 땅에 없는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유대인의 경륜에 속한 것입니다.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렘30:7).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의 구분과 경계를 없애 버린 채 말씀을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이들은 야곱을 ‘교회’로 바꾸어서 읽고 이해하고 적용한 채 해석합니다. 이 시기는 언제인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다니엘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9:24-27을 보십시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단9:24). 주님은 다니엘에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라고 그 대상을 특정 지워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네 거룩한 도시”라고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구절을 바빌론이나 로마, 그리스, 몽고, 한족 등에 적용할 수 없고 로마나 뉴욕, LA에 적용할 수 없듯이 ‘교회’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70 주(이레)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관한 대언입니다. 느헤미야 2:4-8절에 나오는 성전 재건의 칙령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정확히 69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남았는데 7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정해진 여섯 가지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다.]**(단9:24).

1. 범법을 끝냄
2. 죄를 끝냄
3.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룸
4. 영원한 의를 가져 오
5. 환상과 대언을 봉인함
6. 지극히 거룩한 분에게 기름을 부음

이것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성도들의 범법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요19:30).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에 놓였고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벧전2:24).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고후5:19-21). 영원한 의는 믿는 순간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고전1:30). 신약에서 환상과 대언은 봉인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모두 기름 부음

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주의 성경 기록은 대환란의 대상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대환란은 교회를 위해 준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유대 민족들을 정련하여 그들을 회심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대환란 때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한 천사가 나옵니다.**

대환란의 특징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주로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언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천사입니다(계14:6).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지만 천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전할 대언자, 사도, 교사, 복음 전도자를 세웠지만 천사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 사역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시대와 환란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오늘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교회에서 경고하는 많은 선포자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는 천사들의 사역이지 목사, 선교사의 사역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임할 경고를 주는 존재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직접 전합니다(계14:9-11). 신약의 교회 시대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예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전하는 대신 ‘대환란’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이 받게 될 짐승의 표는 현재 성도들에게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모르고 “살아남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도피자” 등등 별별 이상한 표어만이 난무합니다.

• **대환란 때 마귀들과 싸우는 존재는 성도들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계12).**

오늘날 교회는 마귀들과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딤후2:4). 교회 시대에는 천사들이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높은 곳들에 영적 사악함, 정사와 권능들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은 승리를 약속 받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약4:7, 뱀전5:8). 하지만 대환란 때는 성도들이 도망을 가고 마귀가 이깁니다(계13:7).

대환란 때 마귀들과 싸우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지금 교회 성도들과 달리 믿음을 발휘한다고 해도 마귀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 산에 올라가셨을 때 남아 있던 아홉 제자들이 마귀 들린 소년 한 명을 사이에 두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막9). 이전에 제자들은 마귀를 쫓아낸 경험이 있었지만 그 날은 아무런 권능도 승리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이 공중 들림을

받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지상에 있는 대환란 성도들은 마귀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거나 끝까지 견디거나 목 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성도들이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지상에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들림 받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배웁니다. 마귀를 대적하던 교회가 들림 받고 없기 때문에 대신 천사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짐승의 형상”(계13:15)이 나오고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의 숫자”(계13:17)가 나옵니다. 짐승의 형상은 누구나 경배하게 하기 위한 조형물로 만든 우상인데 말도 합니다(계13:15).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합니다(계13:17). 성경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666)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짐승의 수를 ‘한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은 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ID에는 모두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이름값이 있습니다. 그 수가 육백육십육이란 것입니다. 666은 물건 값이 아닙니다. 상품명이나 코드가 아닙니다. 대환란 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 형상의 주인공인 한 사람의 수(number)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이듯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짐승은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계16:10). 성경은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도 말해 줍니다(계17:7).

**짐승의 표는 대환란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입니다.** 한 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종교에 입문한 짐승의 교도들에게 주는 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를 받기 위해 짐승의 형상에게 달려가 경배할 것입니다. 빵은 사람을 통제하고 복종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아무 것도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 매장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만 하면 그 표를 준다고 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짐승의 형상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막연히 세상사람 대부분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이 지칭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계13:8).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4:3).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눅10:20)고 하셨습니다. 현 시대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대환란 중에 사람들이 받는 짐승의 표를 받

을 수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9-11절입니다. [9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이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10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1(계14:10-11). 이 때가 언제인지 보십시오. 14장을 처음부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400명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와 있습니다(계14:1-5). 분명히 땅에 있었던 144,000명이 하늘로 옮겨졌고(환란 성도의 휴거와 부활), 천사들이 하늘을 날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천사는 하늘을 날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둘째 천사는 큰 바빌론의 멸망을 전하고 셋째 천사는 하늘을 날며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징벌을 선포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셋째 천사가 하늘을 날며 경고할 때는 아직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에 앞서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지 않고 아무 예고 없이 심판을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멸망에 앞서 경고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는 누가 줍니까? 교회의 목사, 선교사, 전도자, 설교자들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언제입니까? 대환란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고를 선포하는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경고를 주는 천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대환란 때 하늘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 대한 경고가 떨어지면 누구라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격노의 잔에 부은 포도즙을 마시게 됩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과 고난이 담긴 심판의 잔입니다.

-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향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불 심판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병자나 아픈 사람, 슬픈 사람들이 그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잠이라도 잠을 청해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밤이나 낮이나 어느 시각에도 전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고통을 하루 24시간 내내 온 몸으로 다 감당해야 합니다. 참으

로 엄청난 경고입니다.

-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헛대가 생깁니다. \*표를 받은 그 자리가 찢고 혈이 버린다는 것입니다(계16:2).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나 짐승을 경배하고 받는 표입니다. 그냥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자라는 표입니다. 신분증, 신용카드, 의료보험 용으로 받게 한 후에 짐승의 표로 용도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체 인식 칩, Real ID 등이 짐승의 표로 둔갑하거나 결국 그런 것이 짐승의 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계14:9).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인(sealed)치시듯 사탄 역시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계14:11). 표를 받는 것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것에 대한 표시로 영수증,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헛대가 생기더라.]**(계16:2).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19:20, 20:4 참조. 계시록13:15을 보면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계13:15b)고 말합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죽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거나 숨어서 끝까지 견디거나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죽든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주님의 진노의 잔을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 물건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계13:17).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음식이나 물, 전기, 개스 등 그 어떤 것도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법률, 제도, 시스템은 짐승을 위해 존재하며, 짐승을 경배하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캐톨릭, 무슬림, 불교, 라마교, 힌두교, 무신론, 공산주의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다 짐승을 경배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 죽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사탄에게 죽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은 각자 선택의 몫입니다. 단숨에 목 베어 죽는 것이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목베임 당하는 것은 순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고통을 받다 죽는 것은 개죽음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면 그에게는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4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계 20:4).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짐승의 표와 상관없이 오직 주를 믿고 섬길 때 대한 보상으로 왕관이 주어지고,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합니다. 구원 받은 크리스천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이며(롬8:17),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땅을 통치할 왕권의 주어졌고(요1:12), 유업의 상속자들로 지정되었습니다. 짐승의 표, 목베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 성도와 환란 성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서 목베임을 당해야 주님과 통치한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합니다.

대환란 때 사람의 목을 베는 단두대, 참수형은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에게 시행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 구원 받는 방법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어디론가 숨고 도망가야 합니다. 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기회조차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약과 달리 율법의 행위 없이 의롭게 되었고, 장차 올 대환란이란 고난의 날들 없이 저 하늘에 들림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삼시다.

## 04. 대한란 통과론의 속임수

말씀: 살후2:1-5

요절: 살후2:4

세상에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 영역과 비교할 때 오류, 속임수가 가장 넘치는 곳이 종교계입니다. 기록, 의(義), 정직, 봉사, 청빈, 정직, 희생, 사랑, 배품 등을 강조하는 종교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서로 물고 뜯는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어떤 직종이나 분야와도 전혀 비교를 불허할 정도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입니다(딤후3:15). 하지만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옛적에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 사람들의 사교장, 결혼식장, 사업터, 놀이 공간, 젊은이들의 연애장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사탄의 회당이 교회란 이름으로 우후죽순 세워지고, 거짓 대언자들,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들이 학문과 영성을 두루 섭렵한 학자들인양 자처하며 신학교와 강단을 휘잡고, 무당처럼 신내림을 받은 부흥사, 목사가 영험하고 권능 있는 사역자임을 자처하며,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가 부흥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며,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가 성경 대신 성도들의 영적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두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써왔던 바른 성경(KJV)을 배척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KJV)을 싫어하므로 건전한 교리를 듣지도 배우지도 견디지도 못합니다(딤후4:3). 특히 종말론에 관한 현대 교회는 혼란, 혼동, 무지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저 속이는 자’, ‘세상을 속이는 자’로 불립니다(계12:9). 주님은 일찍이 [...**너희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의 대언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고자 하여 곧 너희의 꿈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렘29:8b)고 하셨습니다. 대한란에 대해 받은 환상과 계시라며 어떤 사람의 책을 보았는데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로 몇 백 페이지였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마24:4, 막13:5)고 거듭 경고 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요일3:7a).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엡5:6a).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칭 유대인들에게 속아서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서 그것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고, 순종을 표현함으로 기록해지는 줄로 압니다. 속은 것입니다. 어떤 이는 종말이 가까우니

어디 산 속으로 들어가 대환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알고 학교나 직장까지 모두 정리해 버립니다. 속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게 속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항상 진리를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딤후3:7), 하나님께 속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환란, 종말에 대한 진리를 배움으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1(골2:4). “속지 말라”는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속이는 자에게 속을 수 있고,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환란 통과론자들”의 애창곡이며, 사람들을 속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본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1).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청(탄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적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by the coming of Lord Jesus Christ)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our gathering unto the Lord)으로 말미암아(by) 간청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by), 둘째는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by)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뭔가를 명령할 때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살전5:27),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 받은 천사들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딤후5:21),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딤후6:13)와 같이 주로 주님 앞에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는 “형제들아....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청한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간청의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딤후4:1과 비교해 보라. 무엇을 간청했는지 그 내용은 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역본은 분명히 “by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our gathering together unto him”이란 부분을 "concerning"(관하여)라고 번개해 버림으로써 본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인 줄로 속여 버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생활 태도, 마음 자세에 대해 ‘간청’(besech)하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의 오심에 관해(about, concerning) 간청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오심에 관해서는 간청할 수도 없습니다. 언어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경의 어휘를 고치고 번개함으로써 성도들을 가장 쉽게 속일 수 있

습니다.

1절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콤마(,)와 그리고(and)로 연결된 두 가지를 근거로 형제들에게 간청합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공중 재림(교회 성도의 부활과 휴거)과 지상 재림. 주님의 오심은 2중적임.
-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임**- 알곡(하늘의 창고)과 가라지(불태우기 위해 단으로 묶음). 주님의 모으심은 2중적임. 성도들은 알곡으로 주님께 모아지고, 불신자들은 가라지로 모아진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2).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간청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복된 소망이 기쁨과 즐거움, 흥분이 아니라 잘못 전달될 때, 속게 될 때, 오류에 빠질 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대환란 통과론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모두 거짓 교리입니다. 건전한 성경적 진리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확신과 능력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딤후1:7).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교회의 대환란 전(前) 휴거에 대한 진리를 써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 받아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복된 소망, 영광스런 소망, 산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스며든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2)란 말씀을 통해 속이는 자들의 3중 공격을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나..." 이는 거짓 대언자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나는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등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로나..." 그냥 말쟁이들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들로서 자기 말이 마치 권위 있는 자의 말이요, 계시 받은 자의 말이요, 신탁을 받은 말이요, 대언자의 말이나 되는 것처럼 떠벌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란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바울의 편지를 위조하고 가장했음을 보여 주는데 절묘한 속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온 편지다!" 이 말은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가짜 서신, 거짓 성경이 교회에 나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바나바행전, 유다 복음, 도마복음 등등은 모두 이런 자들이 만들어 교회

들에 퍼뜨린 것입니다. 말씀의 부패(고후2:17)는 사탄이 주님이 씨를 뿌리고 간 밭에 자신의 씨앗(가라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영이나 말이나 편지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왜 불안과 혼란, 공포를 일으킵니까? 우리는 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선포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소식입니다. 대환란 전 휴거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언제나 흥분과 기쁨입니다. 반대로 환란 통과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은 불안과 염려, 공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환란 전 성도의 부활과 휴거의 진리가 아닌 [환란 통과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활이 없다”(고전15:12)는 주장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딤후2:18)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뒤집어엎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면 이들은 지금 들림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부활과 휴거는 영적인 것이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 역시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대환란 전에 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통과가 진리라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현재도 극심한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환란이 곧 닥친다는 가르침은 그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환란 통과를 주장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대환란이 가까이 왔다”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 하지 말라”(2)고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대환란의 날이 아니며, 교회는 대환란 전에 모두 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분 휴거란 없다(성경은 \*다, 모두라고 말한다-고전15:51). 이를 통해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쉽게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정확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한 단어, 한 글자라도 바꾸면 안 됩니다. 때로 말씀을 변개하는 이들 중에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해석이 나오지 해석에 맞추어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속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6-8절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살후 1:6-8).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고난을 받은 교회(성도)에게는 안식으로, 이 시대에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식(rest)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는 것은 이미 들림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교회가 대한란을 통과한다면  
 둘 다 ‘환란’으로 갇으시는 꼴이 나고 맙니다. 대한란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  
 식의 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벌’의 때요, 환란과 고통의 때입니다. 누구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교회가 대한란 때 들림을 받아 안식을 누리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  
 환란 전 교회의 휴거의 교리는 속이는 자들의 속임수 외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  
 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3).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믿고 확신한 것들에 꾸준히 거해야  
 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 무엇으로 속지 마십시오. 환상이나 기  
 적이나 표적이나 체험이나 그 무엇에도 속지 마십시오. 쉽고 정확하다고 광  
 고하는 현대 역본들의 장사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나 부흥사라  
 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전통이나 절기나 율  
 법에 더 정통할 것이란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어 학자들이 원문에 더  
 정통하고 성경을 더 잘 알 것이란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신학교 교수나 유  
 명 학자들, 각종 주석서들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  
 에 속지 말고 개톨릭 교회에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  
 언가들의 예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속이는 자들입니  
 다.

성경은 이제 “**그 날**”(THAT DAY)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날]이란 바로 주  
 의 날, 대한란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대한란의 날로 속이는 자들에  
 게 속아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그 날**”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날**”(THAT DAY)이 오기 전에 **첫째,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옵니다. 둘째,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 날’을 휴거의 날  
 로 주장하는 분들은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 2절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그대로 ‘그 날’에 적용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한란 전에  
 휴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모두 성  
 경 본문을 바꾸어서 멋대로 해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날’은 휴거의 날  
 이 아니라 **‘대한란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  
 도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 환난은 아무리 커도  
 그것은 대한란이 아니란 것입니다. 테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결코 대한란 중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날’(that day)이라고 말하는 날을 살펴보십시오. 그 날(that day)란  
 말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환란 전 휴거를 부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18,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에게**

서 그 날에(at that day)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남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4:8), [주께서 그 날에(in that day)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네가 잘 아느니라.](딤후 1:18). 바울 서신서에서 “그 날에”란 표현은 상시적으로 나오는 관용구입니다. 우리는 “그 날”(that day)이 언제인 줄 잘 압니다. 성도들은 들림 받은 날이요, 땅에는 대환란이 있는 주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날”은

- 북 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날,
- 예루살렘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고 불타는 날,
- 페르시아에 의해 바빌론이 망하는 날,
-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 아마겟돈 전쟁의 날,
-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있을 심판의 날 이렇게 일곱 가지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날”은 ‘아마겟돈 전쟁의 날, 대환란의 날’(지상)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날’(하늘)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 날(that day)은 오지 않는다”고 말할 때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대환란(아마겟돈 전쟁)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날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적용하면 교회가 들림 받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기 전에는 그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오지 않으며, 그리고(콤마와 접속사 and)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라고 말합니다. 콤마와 접속사로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구분해 줍니다. 이 사이에 교회는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배교)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은 대환란이란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날’(고전1:8, 빌2:16)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빌1:6,10)입니다. 지상에서는 대환란의 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의 ‘그리스도의 날’을 3절에서 ‘그 날’(that day)이라고 함으로써 [대환란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대환란 중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준 것입니다. 그 날(that day)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환란 통과론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이 구절을 물고 늘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1절의 by, 2절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오해, 3절의 그 날에 대해 이해하면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진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

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4). 4절은 죄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의 정체와 그가 하는 일을 보여 줍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거짓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온 세상에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전혀 믿지 않았던 지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 날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은 쉽게 믿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5). 바울은 이미 전에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부활과 휴거, 대환란, 주님의 재림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편지로 쓰는 것은 이전에 이미 말했고, 가르쳤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음으로 바울이 깨달은 것들, 바울이 받은 계시, 바울을 통해 주신 교회의 규례들을 알 수 있고 그 말씀들이 모두 주의 명령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압니다. 바울은 환란 전 성도의 부활과 휴거의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본문을 잘못 읽고 이해한 후에 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성경을 고쳐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되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배교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대환란)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막는 이가 있지만 교회가 이 땅에서 옮겨지고 난 후에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세상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맞이할 때 교회는 저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에게 힘과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속였던 ‘대환란 통과’의 거짓 교리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 줍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모두 주 안에서 복된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